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편그라운드, 18일 '북한강 리버마켓' 개최

김동환 기자 | 승인 2026.04.13 13:21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리마켓·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여

2026년

북한강 리버마켓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시간!
가족과 함께 정약용 편그라운드에서 즐겨보세요!

2026년 4월 18일(토) 13:00 ~ 16:00

정약용 편그라운드 잔디광장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881)

플 리 마 켓

(수공예품, 은공예, 수제청, 음료 등)

체 험 부 스

문화예술공연

* 체험부스는 아동·청소년만 체험 가능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펀그라운드가 오는 18일 ‘북한강 리버마켓’을 개최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리마켓·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 선보일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오는 18일, 지역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강 리버마켓’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한강 리버마켓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 및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중심으로 △은공예 △꼬마김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현장의 흥을 돋울 문화예술공연이 함께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북한강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북한강 리버마켓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가 하나로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리버마켓뿐만 아니라 남양주 공유학교, 청소년 캠프, 다산 클래스(원데이클래스) 등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였던 리버마켓은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해 총 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8일 행사를 시작으로 5월과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리버마켓을 운영, 축제를 정례화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환 기자